## 윤 정부 두번째 기소 이재명…남은 수사 줄줄이

428억 약정 의혹·50억 클럽 백현동ㆍ가스공사 부지 특혜 쌍방울수사등 '사법리스크'

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 부들어 두 번째 기소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 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 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 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마무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 사) ·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428억원 약정 의 혹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김만배 씨 등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 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천화동인 1호에 배 당된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 용이다. 검찰은 이 의혹을 이 대표가 배임 행위 를하기로한 '동기' 중하나로본다.

>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

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 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 속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 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함구하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8 억4,70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들이 검은 공생 관계를 맺고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 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 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에 오른 인 물들에게 실제 로비 자금이 건네졌는지에 대해 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 에 대한 수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이 대표에게까 지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 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 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 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 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 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 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중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2015년 성남시는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 지지역→준주거지역) 올렸고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의 수사선상에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 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 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 러를 보냈다는 사건이다. /연합뉴스



대일굴종외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전공대 정치적 표적감사 즉각 중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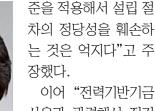
#### 민주 임선숙 최고위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은 22일 글로 벌 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의 꿈 을 담은 한전공대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즉 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다"며 이같이 주 장했다.

임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 다"면서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업적을 훼손하기 위 한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공대는 여야 합의 하에 제정된 한 국에너지공대 특별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며 "일반적인 대학의 설립 기



사용과 관련해서 전기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을 통해 그 지원 근거가

마련됏다"면서 "개정 전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

임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 과 정은 더 문제다. 이 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 등 이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공익감사청구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 장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을 배후 조종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으로 한전공 대 감사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공익감사의 탈을 쓰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윤 대통령 "욕먹을 거 두려워 마라"

#### 장관들에 '정책마케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 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통령은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 도부를 접견한 일을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 의 참석자들이 22일 전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 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간의 반목을 '담장'에 비유하기도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 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 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 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윤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해 한국 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갖고, 일본 측의 호 응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 졌다. 내달로 예정된 일본 지방선거가 지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할 즈음엔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책마케 팅'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고 한다.

윤대통령은먼저 "근 로시간은고용노동부만 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

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들을 향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시 다른 입법"

#### 민주,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농림축 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시) 법적으로 3분 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 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정한 헌법 제53조에 따르

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 를 붙여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 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 률로 확정된다. 재의 절차에 따른 엄격한 의결 요건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만큼, 새로운 법 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원 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뒤구성물질오메가3

건강한 당 설계 결정괴당, 올리고당

I 주문 처 I 전국어디서나 1577-0426 쇼핑 트러스트 www.edaymall.com I 문의 I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